

법사교육 인프라를 갖춘 한국불교법사대학. 대학원 법사(法師) 양성에 교학의 열정이 피는 곳

“바닷가 조약돌이 고운 모습으로 드러나 게 된 것은 오랜 시간 속에 파도와 어울리며 함께한 결과이듯이 법사(法師)라는 명칭 사용과 행보도 많은 역경을 견디어 낸 결과로 오늘날 일반 불자에게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어 지게 되었습니다. 또 법사 명칭이 일반화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교 포교가 확충된 것이고 더불어 불심견고와 선근 불사가 잘 다져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겠습니니다.”

불교 법사양성에 혼과 열을 더하지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학장 지일 스님)은 1991년도 처음 개창하여 올해로 제20기 법사 학인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당시 불교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교계에 훌륭한 대덕 스님들과 법사 관계자들이 지지하고 주축이 되어 함께 의견을 모아 불교가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절실한 시대정신에 부합 하고자 법사 양성에 뜻을 모으고 1991년도에 처음 법사 학인을 모집한 것이 설립 배경이다.

소재지는 서울 견지동 조계사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 건학이념은 대승불교 정착을 위해 선도와 구현의 길을 열어가는 불교지도자인 법사양성을 위한 것이며 대학의 모토는 깨달음의 법(法), 전법하는 사(師)로 되어 있다. 그간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에서는 졸업생이 약 2500명에

이른다. 학제 편성은 법사과정 1년, 대학원 과정 2년, 불학연구원과정 5년, 불교석학과정 2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과정으로는 불교의식과정이다.

또한 서울 본 대학 본원을 비롯하여 지방거주(동선)학인들을 위한 학습강좌와 교육원이 부산·제주에 갖추고 있으며 참선실수를 하는 중앙 참선도량인 산중사찰 삼봉사가 서울 정릉에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오직 법사가 되는 자질향상과 불교 지식인의 인격을 갖추는 교육으로 지도 교수하고 일반 불자의 교양 수준을 넘어 전문화된 법사교육이 진행됩니다. 단순히 학문지식 습득이 아니라 이

론과 수행이 겸비 되게끔 교육 하며 특히 사찰 기본의식습득이 되어 법사의 정신과 책무를 자각자수 되어 지도를 하는 교육적 타마 자세를 의식화 하는 내용의 특성화 교육으로 이루어 집니다.”

법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장 지일 스님은 시대변화에 불교가 대처하는 방안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을 법사 양성을 통해 불교의 책무와 역할이 성취된다고 하였다.

20년 전만해도 법사(法師)라는 용어가 매우 낯설게 느껴져 일반 불자들 사이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교신행에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오늘날 현대사회에

서는 불교의 역할이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시대적 요청을 선도적으로 부응해 나아가야 하는 대중불교·생활불교가 되어짐에 따라 불교에 대한 신해와 행증의 앞도 매우 폭 넓게 열려 있다.

이러한 불교의 책무를 생활 속에서 펼쳐 나갈 수 있는 담지자를 양성하는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에서는 법사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2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오직 법사양성에 교학의 열정을 펴고 있으며 법사 자격을 갖춘 본 대학 동문들의 활동은 사회 곳곳에서 연꽃의 향기를 피우고 있다.

본대학 교무처 : 02)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제20기 법우들의 하계수련회 모습



한국불교법사대학 학인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법사양성을 위해 20년 세월을 엮다

“이제는 우리 대학이 법사 양성 교육도량으로서 공적인 입지 체제가 확고히 구축되어 있고 법사양성 교육 단체로서도 위상 선두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불교 법사양성을 위해 지금까지 오직 20년 세월을 한결같이 법사교육에 헌신 일로한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학장 지일 스님은 법사양성 교육도량으로서의 위상 선두에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법사양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불교법사 양성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오래전부터 불교계에 널리 알려져 호평이 자자한게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법사양성교육이 독특한 교육방법으로 전문화, 특성화 되어 있어 출가·재가를 구별치 않고 불교학문교육을 통해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불교적 지식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데 정밀하여 학문적 지평을 열어가 수 있는 배움의 도량으로 그 중심에 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불교법사대학만이 보유한 오랜 경륜의 힘과 교육적 체계의 내실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기에 그러할 것이다. 특히 법사양성교육



한국불교법사대학 학장 지일 스님

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기에 더더욱 한국불교법사대학, 대학원의 입지 가치와 존재 역할을 통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법사양성은 곧 무위불사입니다. 사물사(事事佛事)도 중요 하지만 법사양성을 통해 불심의 씨앗을 널리 심는 것이야말로 무상의 보리장엄(菩提莊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에 의해 뛰어난 이수자가 탄생 되듯이 법사관련 학문연구자료와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것은 한국불교법사대학만의 독특성이라고 학장 지일 스님은 역설하고 있다.

학장 지일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불교학문 연구를 위해 현재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수학중이다.

‘천자문은 광활한 우주’ 철학·불교 등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낸 한자 이론

고려·조선시대 보다 오히려 오늘날에 이르러 한문 학습자들에게 천자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하다. 이를 반영하듯 시종에는 무수한 천자문 관련 서적들이 쏟아져 나와 있다. 고대전통집구학자인 천명일의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은 기존에 발행된 천자문 서적 중에 단연 돋보이는, 오랜 시간 동안 천자문 관련 서적 무리 중에서 굳건히 다지고 있을 명저임에 틀림없다.

우선 이 책에는 독자들이 전술한 한자의 지극히 막대한 지식, 지적인 내용이 녹아들어 있다. 부산불교경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불교연구가이자 불교이론과 철학과 관련한 수많은 저서들을 남긴 저자는 불교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동양고전과 사상, 의술, 철학, 역학 등으로 천자문을 풀어나며 4차 1구 250수로 이뤄진 천자문의 요체를 밝힌다. 여러 우화들을 예로 들어 심오한 철리가 숨겨져 있는 천자문의 글귀들을 쉽게 풀어나며 천자문의 진정한 대중화를 돕는다. 불교 지식 이외에도 저자의 자전적인 이야기, 다양한 종교에 대한 단상 등이 천자문과 함께 글 속에 녹아있다.



천명일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옛 고대 성인들의 해석과 오늘날의 학식, 지식, 상식으로 는 현대천자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천자 문에는 초월적, 3차원적,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고 천자문을 책으로 엮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대 가치이기도 한 초월적·3차원적·영적인 세계들은 종교나 사상을 떠나 매우 보편적으로 와 닿는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저자가 오로지 온 인류의 본질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둔데서 기인한다. 저자는 비록 “너를 알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찾아 천자문을 풀었지만 지혜와 철리를 종교적 틀에만 가둬두지 않는다. 저자는 이렇게 일갈한다.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적이다 불교적이다며 표현하는데 참 답답하다.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 등 무궁한 세계가 있다. 예수와 부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와 사상을 논한다. 그러나 종교,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각성과 의식의 문제 아닌가?”

천명일 저음 | 지혜의나무 펴냄
신국판 | 533쪽 | 값 18,000원

‘한 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법화경 해설) 사람답게 살고 지혜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경전 법화경 해설.

불교 경전하면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 『한 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법화경 해설)』은 그런 독자들에게 희망이요,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저자 황명찬은 평생을 대학에서 강의하던 노하우와 30여 년간에 걸친 불교공부를 접목하여 불교경전 법화경을 알기 쉽게 풀어나갔다.

오점을 정리하고 비유와 반복을 통해 경전의 어려움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고 수행에 접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동중우의 사전 30여 장이 독자들에게 지루함을 없애고 마음에 여유를 준다.

복잡한 현대인들이 법화경을 이해하고 쉽고 간단한 법화 수행을 통해 지혜와 마음에 평화를 주는 행복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비로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지혜(佛智慧)를 가지고 있어 본래 부처이고 이 세상은 고통의 세계가 아니고 바로 즐거운 곳이라고 설한다. 우리 마음에서 시비분별을 버리고 아상을 비롯한 모든 상을 버리고 나면 이곳이 고통의 땅이 아니라 행복의 땅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모든 강이 바다로 귀일되듯이 법화경 이전의 모든 가르침은 ‘법화경’이라는 큰 바다에 귀일한다.

법화경에서 붓다는 말 법시대의 사람들에게 법화경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였다. 우선 우리는 말법시대는 것이 무엇이며 왜 『법화경』이 그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되는지 알아야 하겠다.



황명찬 저음 | 동중우 사전 지혜의나무 펴냄 | 신국판 | 240쪽 | 값 12,000원

감사의 표현, 포교용으로 좋은 2012년 불교 다이어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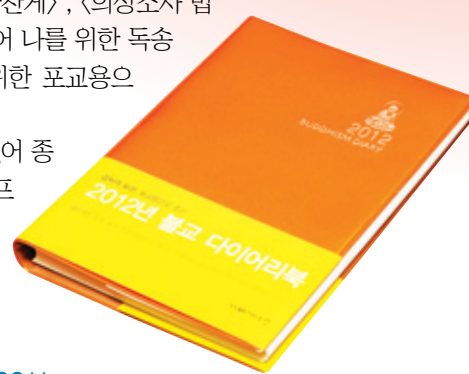
불자라면 누구나 기도와 교리 공부에 충실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 자신부터 누가 물으면 말문이 막힌다. 사천왕과 보살들 그리고 간단한 불교 상식들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말을 못한다. 그럴 때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다이어리가 있다. 바로 불교 다이어리북이다.

매일 매일 음력과 간지를 함께 볼 수 있으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구들이 하루하루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일주일간격으로 불교 상식이 소개된다.

또한 불자 독송집처럼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문과 정근>, <이산 해연선사 발원문>, <화엄경 약찬계>, <의상조사 법성계> 등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나를 위한 독송집이며 다이어리로, 타인을 위한 포교용으로 손색이 없다.

절에 가는 날이 표현되어 있어 종교활동에 활용성이 높고, 스프링으로 제본되어 있어 펼치고 접어서 쓰기에 편리하다.



값 8,900원 / 지혜의나무 발행 (02)730-2211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합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구성 : 스탠드 발침 1개 / 크리스탈 발침 7개 / PC 발침양초 7개 / PC 발침양초 7개(여분증정)

강화사자말약썩양초

한공밀납양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① 약뿔초 90cm 4.7 f × 25cm	② 약뿔초 연병 환기등 7.0 f × 34cm	③ 약뿔초 돈타레 5.6 f × 27cm
④ 약뿔초 1호 4.7 f × 13cm	④ 약뿔초 1호 5.9 f × 18cm	⑤ 약뿔초 1호 5.9 f × 14cm
⑤ 약뿔초 2호 4.7 f × 13cm	⑤ 약뿔초 2호 4.7 f × 10cm	⑥ 약뿔초 4호 반야심경 4.7 f × 10cm
⑥ 약뿔초 3호 반야심경 4.7 f × 13cm	⑥ 약뿔초 4호 반야심경 5.9 f × 14cm	⑥ 약뿔초 4호 반야심경 5.9 f × 18cm
⑦ 약뿔초 3호 연화 4.7 f × 13cm	⑦ 약뿔초 2호 반야심경 4.7 f × 13cm	⑦ 약뿔초 2호 반야심경 5.9 f × 14cm
⑧ 약뿔초 4호 연화 4.7 f × 13cm	⑧ 약뿔초 돈타레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⑧ 약뿔초 연병 환기등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⑨ 약뿔초 4호 연화 4.7 f × 13cm	⑨ 약뿔초 돈타레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⑨ 약뿔초 연병 환기등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⑩ 약뿔초 4호 연화 4.7 f × 13cm	⑩ 약뿔초 돈타레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⑩ 약뿔초 연병 환기등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⑪ 약뿔초 4호 연화 4.7 f × 13cm	⑪ 약뿔초 돈타레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⑪ 약뿔초 연병 환기등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⑫ 약뿔초 4호 연화 4.7 f × 13cm	⑫ 약뿔초 돈타레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⑫ 약뿔초 연병 환기등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⑬ 약뿔초 4호 연화 4.7 f × 13cm	⑬ 약뿔초 돈타레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⑬ 약뿔초 연병 환기등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⑭ 약뿔초 4호 연화 4.7 f × 13cm	⑭ 약뿔초 돈타레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⑭ 약뿔초 연병 환기등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⑮ 약뿔초 4호 연화 4.7 f × 13cm	⑮ 약뿔초 돈타레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⑮ 약뿔초 연병 환기등 전사제반야심경 연화,호형(미)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